

# 광천동 재개발... 시민아파트 존치 '불투명'

(광주)

광천동 일원에 5611가구 공동주택 시민아파트, 준공50년 최초연립주택 광주 서구-5·18단체, 보존방안 협의



광천동 재개발 사업 조감도. /뉴스스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인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근거지였던 시민아파트 보존 문제는 협의의 중이지만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31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에 42만5984㎡ 규모로 총 5개 단지 53개동 5611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골자다.

시행계획이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감정 평가를 거쳐 올해 상반기 조합원 분양을 마치면 관리처분 인가

를 받는다. 일반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정비구역내 670-7번지에 위치한 광천시민아파트 보존과 관련해서는 행정청과 재개발조합·주민·5·18단체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민아파트는 6·25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 살던 천막·판자촌 일대에 지어진 지역 최초의 연립주택이며, 울

해로 준공 50년째를 맞이해 가장 오래됐다. 1980년대를 전후로 지역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들불야학의 주된 무대이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1978년부터 시민아파트에 살았으며, 이듬해인 1979년 1월부터는 이 아파트 다동 2층 방에서 야학이 진행됐다. 각종 시국선언문과 계엄군의

만행을 고발한 '투사회보'도 이 곳에서 제작됐다. 이후에도 들불야학 출신 교사와 학생들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때문에 서구와 5·18단체는 시민아파트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재개발조합과 간담회를 갖는 등 시민아파트 존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조합 측은 시민아파트의 역사적 가치와 존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개발방식을 바꾸고 인가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조건으로 시민아파트 외벽 일부를 재개발 구역 내 근린공원으로 이전 존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민아파트 존치·기념공간 조성과 관련해 접점을 찾을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광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1월의 해양치유식품 매생이

## 완도군

### 1월의 해양치유식품 '매생이'

전남 완도군은 1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무공해 식품 매생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정한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매생이는 완도군에서 연간 2601t(2019년 기준)이 생산된다.

철분과 칼륨, 단백질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다 특유의 향기와 맛을 지니고 있어 오래 전부터 즐겨 찾았다.

'햇바닥을 데어도 꽃샘추위 전에 매생이국이나 한 번 더 먹자'는 말이 돌 정도로 맛이 일품이다. 매생이국은 '미운 사위국'이라고도 하는데, 사위가 딸에게 잘못하면 친정어머니가 입속을 데일 수 있는 매생이국을 끓여 줬다는 데서 유래한다. 매생이에는 칼륨 함량이 높아 숙취를 해소하고 간질환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 중 헤모글로빈의 생성과 두뇌 지적 능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어린이의 발육을 위한 골격 형성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새해에는 바다 향이 가득한 매생이국떡국, 매생이국을 끓여 먹으며 한해를 맞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 장성군 관광자원 확대위한 국가정원 기반 조성

장성군이 경자년 새해, 황룡강과 장성호 등 군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대폭 확대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흥(興)길등무 꽃길축제(5월)와 황룡강 노란꽃잔치(10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황룡강은 '달빛공연장'과 '향기나는 플라워터널' 등 즐길거리와 휴게시설을 늘리는 한편 발원지, 장진보~광주경계 구간의 하천을 정비해 국가정원 지정의 기반을 다진다. 특히 세번의 가을태풍을 이겨낸 100만 송이 해바라기 정원이 조성되었던 황미랜드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주말 평균 5000명이 찾는 '사계절 관광 핫플레이스' 장성호는 제2출렁다리를 준공하고 수변 백리길을 개통한다. 호수 아래 미락단지에 조성 중인 장어정식거리와 함께 향후 장성관광의 발전을 주도할 지역으로 손꼽힌다. 또한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은 유물전시관 리모델링과 세계유산 명품 들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세계인의 문화재'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축령산은 편백숲 공간재



작년 노란꽃잔치

창조사업과 하늘길길 조성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간다.

군의 이러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들은 주거 및 교통여건 신장을 가져올 중장기 사업들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서부권역을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해 사통팔달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LH3·4·5차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장성공설운동장 준공과 다목적 복지관 '가족센터' 신축 등 주거환경과 복지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며 군의 성장·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김태수 기자

## 여수시, 전남 최초로 수소차 충전소 문연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3년간 개최차상위계층 청년에 청년저축계좌 임업인에게 연 60만원 수당 지원

2020년 3월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수시에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가 문을 열게 된다.

여수시는 올해 ▲일자리·경제 ▲관광·문화·교육 ▲복지·보건·여성 ▲농림·수산 ▲교통·건설·환경 등 총 6개 분야 71건이 올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전남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가 중흥동 SPG 여수공장 내에 3월경 문을 연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기존 4억 5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린다.

관광·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여수관광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를 3년간 개최한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희망 바우처 사업도 벌인다.

복지·보건·여성 분야에서는 차상위계층 취업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지원 사업이 가장 눈에 띈다. 웅천지구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월부터 육아정보 나눔터와 장난감 대여실 등을 본격 운영하고, 삼산면 초도와 남면 연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들어선다. 경로당 소규모 긴급 기능보장사업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도 최대 110만 원까지 높아졌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1년 이상 여



전남 수소경제 선도 비전 선포식

수시에 주소를 둔 경영체 등록 농어 임업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 수당이 신설됐다. 또 농업인 공동 이용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소라면 복산리에 건립되고, 친환경 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도 첫 선을 보인다.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임차택시를 신규로 운영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345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인다. 더불어 여문공원에 제2호 아이나래 놀이터가 조성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75대와 전기차 300대를 보급·지원한다.

일반행정·세계 분야에서는 2026여수 세계 섬 박람회 붐업 구간을 지정·운영해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COP28 남중권 유치 시민사회 추진위와 함께 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자연재난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웅천 국민체육센터 사업도 본격화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남=김용환 기자 jiacocom@

## 오산시 '예비 문화도시' 부천시 '문화도시' 선정

경기도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년 문화도시'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오산시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내년도 정식 문화도시 지정 기회를 부여받았다.

2일 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 문화도시 7곳과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오산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각각 지정됐다.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여 도시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내 기초지방정부의 국가정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외적 지지의사와 적극적인 협력 표명으로 광역지방정부로서의 위상 제고와 기초지방정부와의 상생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오산시, 10월 부천시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청단계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펼쳤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오늘의 날씨

1월 3일 (금) 음력 : 12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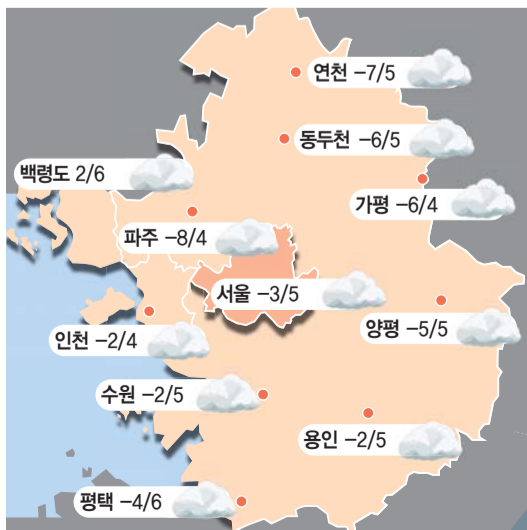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3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